

송전철탄에 파문힐 용인 화운사

전면에 이미 7기 설치, 뒷산에 3기 더 가설 계획

전자파 피해...비구니선원 존폐 위기처해

경기남부의 비구니 선원도량인 용인 화운사 뒷산에 한국전력이 50m 높이의 송전철탄을 설치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화운사는 '154KV 신유인-동백 송전선로건설사업'에 따라 신유인 변전소에서 새로 건설되는 동백변전소까지 설치되는 50m높이의 송전철탄이 사찰 뒷산인 벽조산으로 지나면서 수행환경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벽조산에 송전철탄 3기가 설치될 경우 화운사는 정면부에 송전철탄 7기가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인 화운사는 벽조산에 송전철탄 3기까지 설치될 경우 송전철탄에 둘러 싸이게 된다.

11월 4일 용인시로부터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공고' 공문을 받은 후야야 이같은 계획을 알게된 화운사는 11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에 '용인

시 신유인-동백 송전선로건설사업 승인공고 통보에 대한 반대 협조의 건'이라는 공문을 접수. 종단차원에서 송전철탄 건설을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용인시, 경기도, 제2교구본사 용주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도 공문을 보내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화운사 주지 혜돈스님은 "사찰 뒷산에 송전철탄이 설치되면 산림 훼손, 전자파 발생 등의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비구니선원의 존폐 위기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태해결을 위해 4일 용인시, 용인사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송전철탄 반대 결의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종단과 불자들의 힘을 모아 사업주체인 한전과 사업을 승인한 산업자원부 등에 계획철회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운사 주지 혜돈스님 뒤로 송전철탄이 날카롭게 서있다.

스님은 "토지소유자인 화운사의 의향과 상황을 반영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통보하는 것은 공무집행의 편의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인 용인시청 지역경제과 이용선 사무관은

"사업 초기 한전측으로부터 의견제진 요청을 받고 송전선로 건설시 산림훼손에 따른 소음과 주변경관 저해 및 전자파와 수행환경에 지장 등을 우려한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통보했다"며 "화운사만을 놓고 볼때 다른 곳으로 선로변경을 했으면 좋겠지만, 용인시청의 입장에서는 산

사찰 주변환경 사진 주택복권에 실린다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대표가 9년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찍은 사찰주변환경 사진들이 2003년 1월 둘째 주부터 1년 동안 매주 주택복권에 실린다.

김재일 대표의 사진들은 사찰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한 몫을 할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이나 천성산 등의 사진들은 자연보존 및 사찰수행환경수호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금정·천성산 시민들이 지키자"

고속철 통과반대 대책위 궐기대회

생명의 산 금정산과 천성산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내자는 시민들의 외침이 11월 26일 부산시청 앞을 울렸다.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총회대책위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인들과 시민 등이 참여한 시민 총 궐기대회에서 금정산과 천성산을 관통하는 고속철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이나 천성산 등의 사진들은 자연보존 및 사찰수행환경수호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천성산과 금정산 파괴를 극화한 상황극 공연을 시작으로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 부산시민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안상영 부산시장은 금정산 수호에 적극 나설 것. 정부는 부산시민이 원치 않는 고속철 금정산 관통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은 즉각 노선변경을 공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면까지 가진 가두행진을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금정산 천성산 관통에 따른 자연파괴와 도심 통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홍보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내년 '제2도약의 해'로 불교여성개발원 창립2돌

창립 2주년을 맞는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이 11월 26일 걸스카우트회관 강당에서 기념 세미나와 법회를 열고 '불교여성개발원의 정체성과 사업 목표를 재정비하고 제2의 도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이날 한주영 원

구과장이 발표한 '불교여성개발원의 현실과 전망'이란 발표문을 통해 명확한 목표와 조직력 부족, 사무국의 취약, 포교원의 지원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세미나 후 경리보고와 함께 불교여성개발원 연구자와 불자여성 직업인 교류 △여성불자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여성불자의 의식조사 △연 1회 정기 세미나 개최 △회보발행과 홈페이지 구축 △기금 마련 작품전시회 등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2003-2004년을 불교여성전문인력 네트워크 형성 모색 단계로, 2005-2006년을 여성불자 전문 인력 네트워크 형성 시기로 잡고 신태조사와 학술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경 기자



화운사 주지 혜돈스님과 신도 200여명이 초고층아파트 건립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법회를 갖고있다. 사진 오른쪽 높이 솟은 건물은 46층 아파트이다. 사진=임민수 기자

"초고층 아파트 건립 중단을"

봉은사 스님·신도 촉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원우 기자

서울 삼성동 봉은사 스님과 신도 200여명은 11월 28일 경내 동쪽에 (주)현대산업개발이 건립중인 46층 높이의 초고층아파트 건립중단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봉은사 신도회는 이어 건설현장을 항의 방문,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거대 장애이 형성돼 전통사찰의 미관이 훼손됨은 물론 금속판넬과 특수유리의 장재로 빛 반사가 강해 녹지 및 문화재 손상이 우려된다는 이에 대한

무해스님 대선출마 세계불교법랑청 무해스님(본명 김길수, 54)은 11월 28일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국대민안호국당 후보로 나선 무해스님은 기호 6번을 배정받았다. 무해스님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승병이 이 국기를 수호했듯이 국민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출마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주요 사찰 겨울수련회 '스타트'

대흥사 29일부터 5박6일간 참선수련

해인사 1차 일반, 2차 수련회동문 대상

동계 휴가와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겨울 수련회가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해남 대흥사는 수련 경험자를 대상으로 12월 29일부터 5박6일간 겨울 참선수련회를 연다. 수련회는 화선과 경행, 예불, 108배 등 철저한 수련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흥사는 내년 1월5-12일, 1월15-22일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단기출가

행식의 한문학당도 연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1차(12월 18-21일)는 일반인 대상이며, 2차(12월 25-28일)는 여름수련회 경험에 있는 동문들을 대상으로 각 100명씩 3박4일간 참선 수련회를 개최한다.

고흥 거름도 섬에 위치한 송광암은 12월29일-1월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바다의 정취를 즐기면서 수행

하도록 했다. 수련내용은 부처님호흡법, 관음기도, 108왕회, 합구 참선 화두법, 행선(좌대)등산, 금강 해수욕장, 수심결 강의 등이다.

김재일 기자

■겨울 수련회 여는 곳

사찰	기간	연락처
해인사	12/18-21 12/25-28	1055/932-7430
백암사	12/25-29, 1/22-26	061/392-0434
대흥사	12/29-1/3, 1/5-12(초등), 1/15-22(초등)	061/534-5502
송광암	12/29-1/1, 1/9-1/12 1/16-1/19	061/843-8488
봉인사	12/7-15 12/21-29 1/4-12 1/18-26	031/576-5585
미흥사	1/4-11(초등), 1/15-22(중등)	061/533-3521
동화사	12/20-22	053/982-0101
보리수선원	12/2-13, 1/6-17	021517-2841
호두마늘	12/15-21 12/27-29	041/567-2841
동사법범회	12/23-28	063/351-5125
굴곡사	12/1-2/28	0541745-0246

'북한산관통로' 대선공약 명문화 요청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한나라당 방문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11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부영 의원, 박계동 전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명문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교환경연대 생태조사연구실장

법현스님 등 연석회의측 7명이 배석한 자리에서 법현스님은 "북한산 관통도로는 불교계 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주민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선거공약으로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부영 의원은 "북한산 문제는 잘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도로개설을 반대한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11월 28일 북한산 관통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한 서한을 '세계자연보호연맹(IUCN)'과 '미국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친구들' 등 국제환경단체에 발송했다. 이 서한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관통도로의 문제점, 도로개설시 발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적 문제점 등이 담겨있다.

경의선복원 군장병 찾아 일선스님, 위문품 전달

평화통일사 회장 일선스님이 11월 27일 경의선 철도복원공사 현장을 방문, 육군 제1건설단 군장병들을 따뜻하게 격려했다. 스님은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투입되는 장병들을 만나 사랑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파주=임민수 기자

동산불교 학술 연구소 및 동산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권선문

본 동산반야회는 1982년부터 무진장큰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20년 동안 신행해 왔습니다. 큰스님은 한국불교 근대사에 있어 대 포교사의 업적을 남겼기에 동산장립 제 20주년을 맞아 동산불교 학술연구소와 동산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큰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고 또한 후학인을 양성하여, 앞날에 한국불교포교를 튼튼히 하고자 하옵니다.

불교를 아끼는 여러분! 동산학술연구소와 장학재단설립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시시오. 미래 불교포교변화의 장을 열겠습니다. 후원금액은 후원자의 뜻을 존중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소중히 하겠습니다.

- ▶ 동산불교학술연구소:근본불교연구 및 포교방법연구 분야
- ▶ 동산장학재단:불교학분야 연구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016-01-0226-236 동산반야회
- 농협:053-01-192203 김재일
- 우리은행:119-05-121292 동산반야회
- 우체국:010041-02-066442 김재일

▶ 후원회사무국: 02)732-1206~8

불교 교육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
전문도량 한국불교 인권법당 주지 박진관

허허! 내 손주들을 먹고 있소이다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기의 제재자 성광수氏

"안심하고 먹이십시오"

수신천사토종오가피는 인공감미료나 향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천연 원료만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손주들을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만들었고, 성광수씨의 손주들 부터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월드컵 4강신화를 이룬 축구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던 수신토종오가피!

이제 어린이를 위한 수신천사 토종오가피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세요.

성광수씨가 재배한 고구마를 드립니다!

지금 '수신천사토종오가피'나 '수신토종오가피'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성광수씨가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직접 재배한 천연 무공해 고구마를 한상자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매품 : 수신토종오가피

지금 전화주시시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55-7555